

국제경쟁시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종돈의 육종, 이영체계 개편방안 안영안

1. 유전자원의 도입과 육종체계의 확립

우리나라는 돼지의 개량을 위하여 매년 1,000여두의 종돈을 외국에서 수입함으로써 연간 500만불(약 40억원) 이상의 외화를 소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1994년에는 전년보다 60% 이상 더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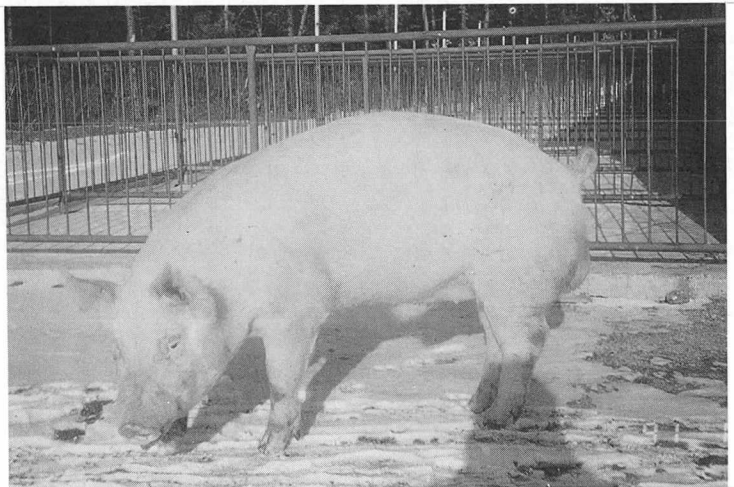
돼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육종체계를 갖추지 못

하고 국제적인 무한경쟁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루 속히 수입된 종돈의 유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자손이 지닌 우수한 능력이 생산비 절감과 육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의 종돈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육종사업이 어려워져 외국에서 종돈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단위 육종집단을 육성하고 치밀한 계획하



백 동 훈 교수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에 육종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돈의 외국의존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 이용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농장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값비싼 유전자원의 소실을 가져오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종돈의 외국의존도를 줄이고, 도입된 유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종사업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 종돈개량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 강화

우리나라에서 종돈개량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113개소의 민간종돈장, 생산자단체인 축협 종돈사업소, 그

리고 국가기관인 국, 독립종축장이며, 이와는 별도로 대한양돈협회의 2개 종돈능력검정소에서 민간종돈장이 출품한 종돈을 검정하여 경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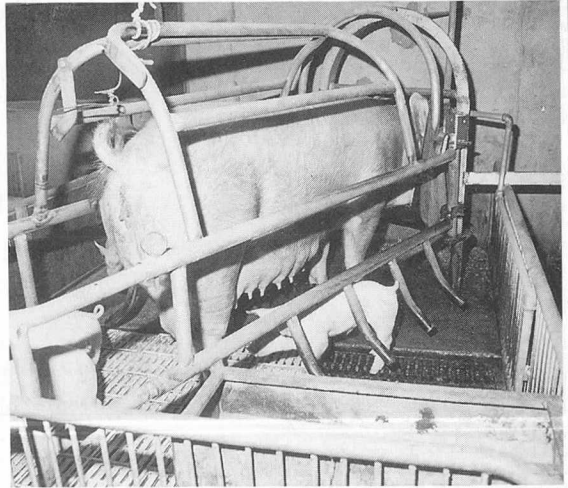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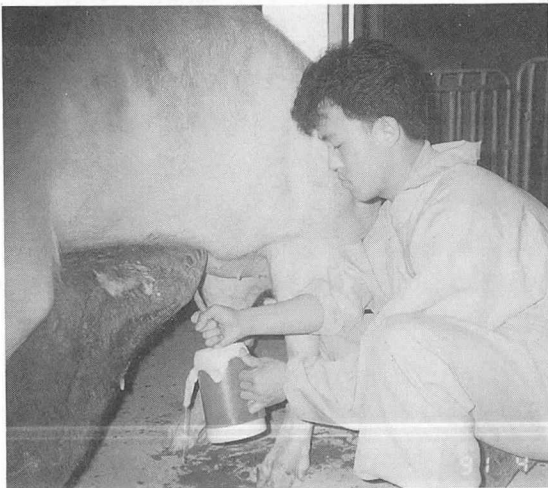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등록업무를 함으로써 종돈의 능력을 확인하고 개량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종돈개량기관은 그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정보의 교류가 쉽지 않다. 이제는 보다 활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최고급의 종돈을 일반 비육돈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민간종돈장의 기능 강화

민간종돈장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

설을 현대화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여 주고 검정사업 및 검정소 출력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돈장의 여건에 따라서 개체선발 뿐만 아니라 육질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형매검정에 의한 선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다면 후대검정을 통하여 자손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육질검사의 자료를 가지고 종모돈을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 종돈장에서의 기록관리는 일상의 일이다. 개체 종돈별 기록 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대한 모든 기록이 전산화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밀한 능력검정에 바탕을 두어 교잡종 모돈을 생산하고, 판매되는 교잡종 모돈에서 균일한 비육돈이 생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축협 종돈사업소의 역할

축협의 종돈사업소는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는 있으나 단순한 종돈의 생산, 공급 업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하루 속히 검정업무를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몇해 전에 도입된 종돈의 자손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된다. 끊임 없는 연구와 능력검정이 이루어지고, 검정자료를 정밀한 방법에 따라 평가,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종돈장이 하기 어려운 후대검정과 같은 사업을 축협이 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검정규모를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리고 교잡종 모돈의 공급을 확대하여 앞으로 축협 육가공공장의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격돈의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국립종축원의 역할

국립종축원과 도립종축장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그동안 우리나라 돼지의 개량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민간 종돈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돈의 능력보다 우수한 돼지를 분양하고, 국, 도립 종축장이 최고의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거리가 먼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과감히 인력을 보강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며,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핵돈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검정소의 검정성적을 종합하고 개량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순종돈에 대한 선발 뿐만 아니라 교배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국립종축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6. 종돈능력검정소의 기능 강화

대한양돈협회의 공인 종돈능력검정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종돈개량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더욱 활성화되고 과학화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및 등지방두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돈육의 대일 수출을 겨냥하여 고급 돈육을 생산하기 위하

여는 검정항목을 보다 늘려서 단층촬영에 의한 배장근 단면적의 측정과 할로테인검사에 의한 PSS돼지의 선별이 필수항목이다.

종축개량협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출품된 돼지의 부모를 추적 보증하는 일, 경매된 돼지의 자손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고 공표하는 일까지도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육질의 개량을 위하여 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선발지수를 개발하여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7. 종축개량협회의 등록업무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종돈의 등록업무 외에 등록된 종돈에 대한 능력을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종돈의 기록을 심사하여 수입추천업무를 하고 있다. 종돈의 등록에 있어서 현재의 외모심사에 치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생산능력의 기록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선조와 자손의 능력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공표하는 일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8. 국립종축원 내에 육종연구센터의 설치

국립종축원의 기구를 개편하여 육종연구센터를 만들자. 현재의 국립종축원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한우, 젓소, 돼지 및 닭의 개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원이나 기타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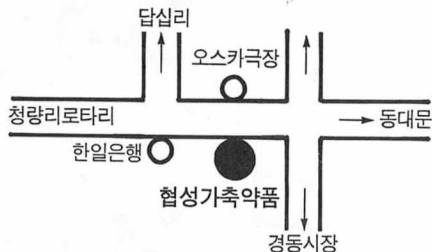
같이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가축종자의 개량을 위하여는 과감한 연구투자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종축의 개량을 위하여 수백명 박사의 두뇌를 활용하듯이 우리도 하루 빨리 국립기관에서 종축개량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예교육을 받은 우수

한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축산인에게 필요한 유전자원을 확보,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4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족
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주)협성가축약품

* 동물약품 도매전문 *

〒 13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87-31

본 사 :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 965-9778